



유럽 증시, 지표 개선, ECB 위원 완화적 발언 등으로 강세

유럽 증시 리뷰

24 일(목)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독일의 제조업 PMI 등 주요 지표 호조, 추가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ECB 위원 발언 등으로 강세(독일 DAX +0.2%, 영국 FTSE100 +0.2%, 유로스톡스 5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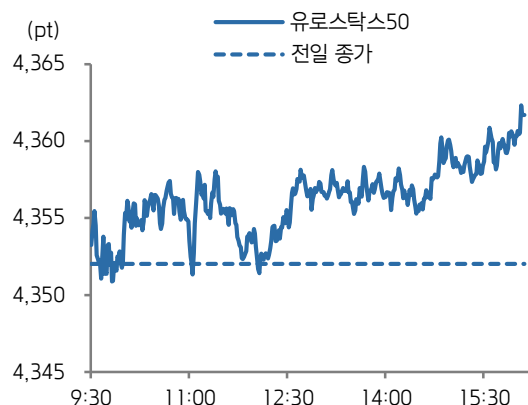
독일의 11 월 합성(제조업+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7.1 로 전월(46.5) 및 컨센(46.9)를 상회. 제조업(43.8, 컨센 43.4), 서비스업(48.2, 컨센 48.1) 모두 예상보다 개선세를 보였다는 점이 합성 PMI 호조의 배경. 집계 측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경기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

중국 당국은 적격 은행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무담보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짐. 해당 자금은 기업들의 운전자금 용도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업체들은 자본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관련 외신들은 보도.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11 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40%로 500bp 인상을 단행(시장 컨센서스는 250bp 인상). 튀르키예 중앙은행 측은 현재 긴축 정책은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있는 상태이며, 인플레이션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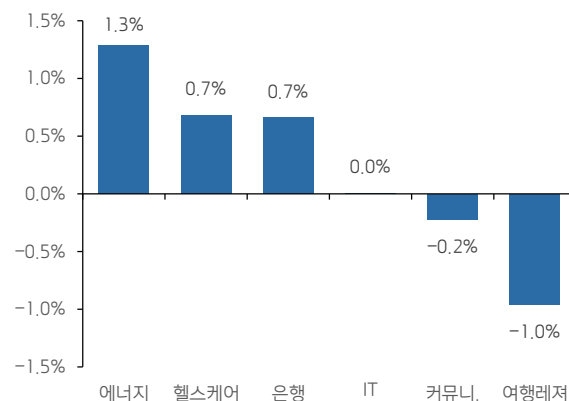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식 투자 관련 인플러언서들이 정 종목을 추천한 후 차명계좌로 매도하는 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약탈적 범죄 2~3 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언급. 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정보의 매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다른 숫자 사실관계에 입각해 시장 불안 조성 행위를 하는 건 일반적인 실수라기보단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지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514.96 | +0.13% | USD/KRW | 1,297.50 | -0.23% |
| 코스피 200 | 336.91 | +0.03% | 달러 지수 | 103.76 | -0.16% |
| 코스닥 | 815.98 | +0.17% | EUR/USD | 1.09 | +0% |
| 코스닥 150 | 1,286.62 | +0.33% | USD/CNH | 7.15 | +0.01% |
| S&P500 | 4,556.62 | +0.41% | USD/JPY | 149.58 | +0.01% |
| NASDAQ | 14,265.86 | +0.46% | 채권시장 | | |
| 다우 | 35,273.03 | +0.53% | 국고채 3년 | 3.642 | -2.3bp |
| VIX | 12.80 | -0.39% | 국고채 10년 | 3.710 | -5bp |
| 러셀 2000 | 1,795.54 | +0.69% | 미국 국채 2년 | 4.900 | +0bp |
| 필라. 반도체 | 3,744.96 | +0.33% | 미국 국채 10년 | 4.404 | +0bp |
| 다우 운송 | 15,032.28 | +0.23% | 미국 국채 30년 | 4.537 | +0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361.32 | +0.21% | WTI | 76.35 | -0.97% |
| MSCI 전세계 지수 | 690.24 | +0.09% | 브렌트유 | 81.42 | -0.66% |
| MSCI DM 지수 | 3,004.76 | +0.16% | 금 | 2014.1 | +0.04% |
| MSCI EM 지수 | 983.60 | -0.49% | 은 | 23.76 | +0.3% |
| MSCI 한국 ETF | 62.91 | +0.05% | 구리 | 377.2 | +0.24%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연말 소비 시즌 수혜받는 IT 가전,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업종 2. 미국 휴장 및 블랙프라이데이 결과를 둘러싼 대기심리의 장중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 3. 에코프로머티 등 개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 년물 국채금리 4.4%대 하락, 유가 76 달러 도달, 이스라엘-하마스 일시적 휴전 등 9 월 이후 증시 조정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해소되며 증시 환경이 개선. VIX 변동성 지수는 10 월 21.7 에서 전일 12.8 까지 하락하며 연말 소비 모멘텀에 대한 낙관론과 미 경기 3 분기 피크 아웃 전망이 공존.

블랙프라이데이는 연간소매판매액의 19% 정도 차지.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11 월 23~27 일)의 구매자는 1.82 억명(작년 1.663 억명, YOY 9.4%)으로 전망되며 2017 년 이후 최고치. 그러나 11~12 월 매출액은 9,573~9,666 억 달러로 YOY 3~4% 성장에 그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 (매출액 YOY 증가율 2020 년 9.1%, 2021 년 12.7%, 2022 년 4.5%, 지난 10 년 평균 4.2%).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여력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2) 광군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3) 앞서 실적을 발표한 미국 소매업체들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

11 월 12 일까지 진행되었던 중국 광군제의 경우 2022 년과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전체 거래액은 1 조 1,368 위안으로 YOY 2.08% (22 년 YOY 13.7%) 증가에 그쳤음. 중국 경기가 부진한 탓에 고가의 모바일, PC 등 IT 제품을 비롯한 해외 제품 보다는 중국산 제품, 생활필수품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 다만 중국의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점이 최근 유가 하락을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이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둔화에 기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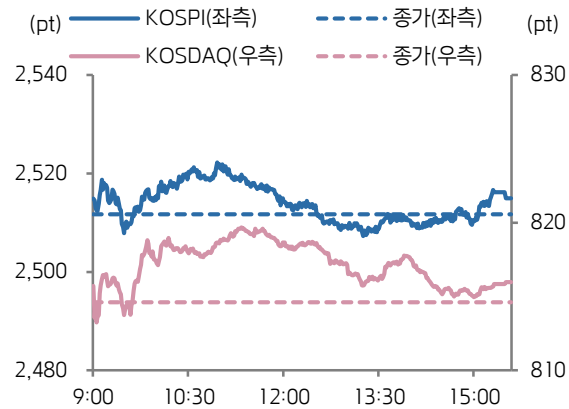
미국 소매업체인 달러제너럴, 월마트, 메이시스 등은 작년에 이어 과잉재고 우려가 존재. 대형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 콜스, 로우스 역시 실적 발표 직후 주가 흐름 부진했으나 휴장 전일 반등에 성공.

평균적으로 2013~2022 년 추수감사절 이후 2 주간 미 증시에서는 카지노, 소비재, 헬스케어 관련주 강세. 미국 경기는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기 할인행사가 진행된 10 월 소매판매 역시 온라인 판매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둔화에 그쳤음. 향후 초과저축 여력의 감소가 급격한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얇은 경기침체에 그칠 것으로 판단. 소비자의 1/4 이 쇼핑을 완료한 11 월 첫 20 일까지 온라인 매출은 632 억달러로 YOY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현재까지는 견조한 것으로 확인.

22 일(목) 국내증시는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 및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결과 대기 심리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강보합 마감 (KOSPI +0.13%, KOSDAQ +0.17%). 반도체는 약세를 보인 반면, 에코프로머티(8.66%) 개인 수급 유입 지속, 이번주 들어 기관, 외국인 자금 유입된 에코프로(0.43%) 등 이차전지 업종 강세, 원전, 신재생, 인터넷게임, 제작사 등 금리하락 수혜 및 개별 호재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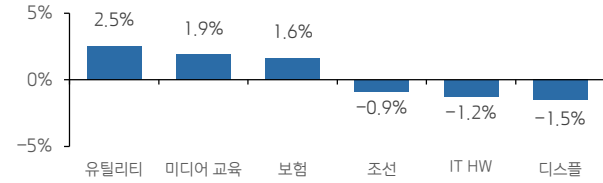
금일에도 금요일 미 증시가 조기폐장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제한된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어갈 것. 국내의 경우 미국 연말 소비 시즌 수혜 업종은 필수소비재, IT 가전,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특히 IT 가전 업종의 주가는 과거 11 월, 12 월 연휴 소비시즌 기대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LG 전자, 삼성전기는 지난 2 년간 11 월 말 ~ 12 월 첫째주까지 단기 급등을 보였던 패턴 존재. IT 하드웨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은 11 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 기록 중으로, 12 월 초까지 모멘텀 존재할 가능성.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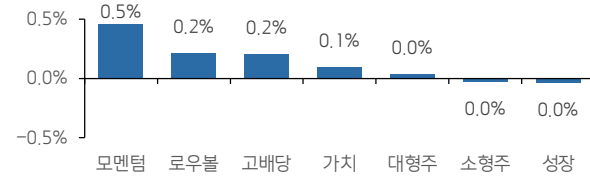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